

수능 국어 현대시 만점을 위해서는 모르는 작품을 만나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그 힘이 '해석'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국어 현대시 시험은 객관식인 만큼 '해석'은 출제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왜곡 없이 읽고 선지를 통해 제시된 해석이 적절한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 『하루 30분, 현대시 트레이닝』은 4주(28일) 동안 현대시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하고 선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시 지문 독해 시의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체화**하고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고2 학력평가 및 고3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엄선한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능 국어 현대시 만점을 위한 **단계별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제 책과 해설 책을 분권하였으며, **4주 완성 계획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해설 책의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을 채워 가며 자신의 학습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 완성 계획표

일	문제	해설
01	서간문 '지팡이'의 빈칸 풀이 - 이문익 시해	P008 P004
02	동시문 '달빛과 새 울음' - 김소월 시해	P010 P006
03	백지, 황천 - 백관생룡 시 - 나태주 시해	P012 P008
04	고운, '죽음' 시해 - 김소월 시해	P014 P010
05	이광익 '죽음' 시해 - 백관생룡 시해	P016 P012
06	이광익 '죽음' 시해 - 백관생룡 시해	P018 P014
07	유정호 '그림' 시해 / 최우익 '달' 시 - 최우익 '우주' 문 열려라 시 / 문열려 '가을'	P020 P016
08	정호승 시해 - 박재민 시해	P024 P020
09	문정호 '죽음' 시해 - 박재민 시해	P026 P022
10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P028 P024
11	박재민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30 P026
12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32 P028
13	고운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34 P030
14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36 P032
15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38 P034
16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40 P036
17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42 P038
18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44 P040
19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46 P042
20	김정호 시해 / 안우익 시해 풀이 - 박재민 시해 풀이	P048 P044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http://www.holsoo.com))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현대시 트레이닝』으로

4주 후, 달라진 현대시 지문 독해력과 선지 판단력을 확인해 보세요!

## 4주 완성 계획표

DAY	수록 작가 및 작품	페이지	
		문제 책	해설 책
1 주차	01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틈마루」 · 이형기, 「낙화」	P.008	P.004
	02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 김소월, 「접동새」	P.010	P.006
	03 백석, 「팔원-서행시초 3」 · 나희덕, 「땅끝」	P.012	P.008
	04 고은, 「머슴 대갈이」 · 김광균, 「향수」	P.014	P.010
	05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박재삼, 「추억에서」	P.016	P.013
	06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 박목월, 「만술 아비의 축문」	P.018	P.016
	07 오장환, 「고향 앞에서」 / 최두석, 「낡은 집」 · 객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문태준, 「극빈」	P.020	P.018
2 주차	01 정호승, 「허물」 · 유치환, 「선한 나무」	P.024	P.024
	02 문정희, 「울포의 기억」 ·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P.028	P.028
	03 정지용, 「고향」 · 이수익, 「방울소리」	P.032	P.032
	04 박두진, 「향현」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P.036	P.036
	05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김종길, 「고고」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P.040	P.040
	06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김명인, 「그 나무」 · 이용악, 「하나씨의 별」 / 유치환, 「귀고」	P.044	P.044
	07 정지용, 「나비」 / 김기택, 「얼음 속의 밀림」 · 이형기, 「산」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P.048	P.048
3 주차	01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객재구, 「사평역에서」	P.054	P.054
	02 김광균, 「노신」 · 김용택, 「섬진강 1」	P.058	P.059
	03 나태주,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 김광규, 「상행」	P.062	P.065
	04 오세영, 「모순의 흙」 ·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P.066	P.071
	05 윤동주, 「병원」 / 박목월, 「나무」 · 김광균, 「와사동」 / 박용래, 「울타리 밖」	P.072	P.077
	06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오세영, 「자화상·2」 · 문태준, 「맨발」 / 송찬호, 「구두」	P.078	P.084
	07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송수권, 「대숲 바람소리」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박남준, 「아름다운 관계」	P.084	P.090
4 주차	01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김광규, 「묘비명」 / 삶의 반영으로서 시	P.094	P.098
	02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 조지훈, 「고풍 의상」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P.098	P.103
	03 백석, 「두보나 이백같이」 / 문태준, 「가재미 3-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 시에서의 장소감	P.102	P.108
	04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시에 활용되는 이미지의 기능	P.106	P.113
	05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 장석남, 「살구꽃」 / 은유의 본질	P.110	P.118
	06 백석, 「수라」 / 송수권, 「까치밥」 / 시적 공간의 의미	P.114	P.123
	07 시의 현실 반영 양상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나희덕, 「못 위의 잠」	P.118	P.128

1주차

지문 독해의 원리

1주차에서는 본격적인 선지 판단 훈련에 앞서 현대시 지문을 객관적으로 읽는 훈련을 할 거야.

1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30** 하루 30분, 현대시 트레이닝

1주차 1일째 SET 0

드래이브 날짜 월 일 일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릿빛 뿔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화자는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 있는 \_\_\_\_\_에 주목하고 있네. 이 뿔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말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임니다마는, 외할머니네 집 뒤편의 뿔마루는 오랜 세월을 거쳐 가족들의 \_\_\_\_\_가 풍운 공전이며,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이 거울로 반질반질 닦아져서 어린 내 얼굴을 돌이비칩니다. 한 개과 \_\_\_\_\_이 한 외할머니네 집 뒤편의 뿔마루에 화자의 \_\_\_\_\_ 시를 얼굴이 비친다고 하네.

그때,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떼겨울 뿔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술을 바로 합니다. 어머니한테 \_\_\_\_\_을 들은 화자에게 뿔마루라는 공간과 외할머니가 띠다 준 \_\_\_\_\_은 필요와 자유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 있어 있는 이 뿔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_\_\_\_\_의 꾸지람이 떠날 수 없는 \_\_\_\_\_의 침 뿔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비쳐서 있다고 하고 있어

- 사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뿔마루」 -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에게 꾸지람을 듣고 외할머니네 집 뒤편 \_\_\_\_\_에게 가서 위안을 얻는 \_\_\_\_\_나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편'은 화자가 뿔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뿔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뿔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뿔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뿔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O  X
  - ②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O  X

어린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은 날이면 뿔마루로 찾아가 외할머니가 따다 주신 '오디 열매'를 먹으며 '술을 바로' 한다고 했다. 따라서 뿔마루는 화자가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경험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뿔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찾아온 어린 '나'에게 외할머니는 '장독대 옆 뽕 나무에서' '오디 열매'를 따다 준다. 따라서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⑤ 뿔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뿔마루'를 통해 어린 시절의 기억과 외할머니의 사랑을 떠올린 화자가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뿔마루에 '나란히 비쳐'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O  X

• **색채 이미지:** 대상이 어떤 빛깔을 연상시키는 것. 사물의 빛깔을 표현하는 어휘 중 색채가 사용되면 당연히 색채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대상이 특정한 색상을 띠고 있으면 색채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색채어가 등장하면 당연히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며, 두 가지 색채가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 '색채 대비' 이룬다고 함. **[예]** 먹오릿빛 뿔마루

②  X

• **거리 두기:** 1. 대상을 멀리서 바라봄 → 대상에 대한 객관적 태도.  
2. 심리적 거리가 멀 →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  
• **관조:** 대상과 거리를 유지하고 느긋하게 지켜봄.

- 1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워 보자. 선택형으로 제시된 부분은 둘 중 옳은 설명에 표시하면 돼. 이때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 '화자'와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을 찾아 지문에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마!
- 2 지문에서 화자와 대상을 파악했다면, 이를 토대로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박스의 빈칸을 채우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 3 1번 문제는 지문의 핵심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했어.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하며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자.
- 4 2번 문제는 작품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묻는 문항이야. 해설 책에 제시된 문학 개념어의 정의와 지문 속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 보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 2 / 3 / 4 주차

### 선지 판단의 원리

2~4주차에서는 '선지 판단의 공식' 표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선지를 가려내는 훈련을 할 거야.

#### 2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나는 '다섯 물과, \_\_\_\_\_ '에 흠어진 철이('너')를 부름, ' \_\_\_\_\_ 구름 밖'과 '하늘가'에 어디로 향해야 ' \_\_\_\_\_ 와 마주 서는 게냐'고 묻고 있음

선지 → '너'와의 거리에서 오는 '나'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②

작품 '나는 '어어어 어어어 \_\_\_\_\_ 높여' '너'를 부르며 '너와 마주 서고 싶어함

선지 → '너'로 인해 떠올린 고향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2주차에서는 1주차와 마찬가지로 ① - ② - ③ - ④의 순서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문제를 풀 후,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1번 문제의 선지를 다시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 각 선지의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훈련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는 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야.

#### 3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보기> 나무의 변화는 \_\_\_\_\_ 을 통해서 일어남

선지 →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작품 ' \_\_\_\_\_ /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을 배워볼 거야.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근거를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하면 돼.

#### 4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 설명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설명글 시에서 반영은 역사와 \_\_\_\_\_ 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둬

선지 →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가): '설달', '㉠앞내강 짹짹 \_\_\_\_\_ 조이던 \_\_\_\_\_ 에'

4주차에서는 설명글이 포함된 융합 지문에 대한 독해와 융합 문제 풀이 훈련을 해 볼 거야. 설명글을 읽고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우며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자. 이후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활용해 설명글의 관점을 바탕으로 선지를 꼼꼼하게 판단해 보면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선지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어.

## 1주차 학습 안내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현대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많은 학생들이 이를 완벽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 현대시 지문을 읽을 때에는 시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다고 생각하며 읽으면 돼. 이와 같은 필수적인 이해를 넘어서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에서 출제자가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해석이 적절한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즉 우리는 '최소한의 이해'를 목표로 삼고 현대시 지문을 읽으면 돼.

'완벽한 해석'이 아닌 '최소한의 이해'를 위한 현대시 지문 독해는 화자와 대상,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따라서 1주차에서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 화자와 화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 정리해 보는 훈련을 할 거야. 화자를 찾을 때는 '나' 또는 '우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작품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한 표현이 없다면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는 사실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시적 대상은 자연물이나 사물처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사랑, 슬픔처럼 추상적인 요소일 수도 있으며, 화자 자신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 화자와 대상을 파악했다면 화자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끝까지 읽어 나가면 돼. 이는 각 구절의 내용에 대한 이해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과의 흐름'과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박스의 빈칸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지문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했다면 1번 문제를 풀며 자신의 이해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2번 문제를 통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학습하자. 문제 풀이까지 모두 마쳤다면 해설 책을 참고하여 잘한 부분, 아쉬운 부분 등을 확인하여 정리해 두자.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화자는 \_\_\_\_\_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떠날 줄 아는 이를 \_\_\_\_\_고 하네.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화자가 '나'로 나타났네! 시의 제목인 \_\_\_\_\_를 고려  
 하면 '나'는 자신의 사랑을 꽃으로 비유하여 사랑이 \_\_\_\_\_고 표현하고 있어.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사랑이 지고 있다는 것은 \_\_\_\_\_을 말한 거였네! 결별이  
 \_\_\_\_\_을 이룩한다고 했으니, 화자는 결별을 (긍정적/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무성한 \_\_\_\_\_이 있는 여름을 지나 \_\_\_\_\_를  
 맺는 가을을 맞이하듯 '나'의 청춘도 \_\_\_\_\_ 죽는다고 하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샬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의 슬픔을 통해 '나'는 \_\_\_\_\_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 이형기, 「낙화」 -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를 보고 사랑과 _____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 으며 _____하는 '나'
------------	---

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 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영탄과 독백의 어조가 드러나고 있다. ○ ×
- ②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 ×

## 2주차 학습 안내

1주차에는 주로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선지 진술 간 일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2주차에는 한발 더 나아가 작품에 대한 감상·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론적 이해를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도 풀어볼 거야.

우선 1주차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으면서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사과의 흐름의 빈칸을 채우거나 선택형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자. 이를 토대로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2주차에서 새로 추가된 '선지 판단의 공식' 표를 활용해 1번 문제의 선지를 하나씩 다시 분석해 볼 거야. '선지 판단의 공식'의 빈칸을 채우면서 선지별로 정오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각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지. 처음 문제를 풀 때의 자신의 사고 과정과 '선지 판단의 공식'을 활용해 다시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올바른 정오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접근 방식과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야.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느티나무 등치에 매미 허물이 붙어 있다  
바람이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다  
나는 허물을 떼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 '나'는 \_\_\_\_\_이 불어도 꼼짝도  
않고 느티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_\_\_\_\_을 떼려고 하고 있어.

순간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허물의 발이 느티나무에 더 착 달라붙  
었다 '나'가 힘을 주어 \_\_\_\_\_을 떼어내려 해도 허물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느티나무  
에서 \_\_\_\_\_ 앉으려고 \_\_\_\_\_을 주었다.

허물은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  
하다 '나'는 \_\_\_\_\_이 자신을 벗고 날아간 \_\_\_\_\_를 위해 느티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라  
슬며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다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_\_\_\_\_을 통해 \_\_\_\_\_를 생각했나 봐.

팔순의 어머니가 무릎을 곧추세우고 결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다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  
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아직 느티나무 등치에 붙어 있는 까닭은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 '나'는 마루를 닦는 팔순의 \_\_\_\_\_를 바라  
보며 느티나무에 붙어 있던 \_\_\_\_\_과 연결짓고 있어. 허물이 \_\_\_\_\_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나무에 붙어 있던 것처럼 늙은 어머니도 \_\_\_\_\_걸을 지키며 살아  
오신 거지.

- 정호승, 「허물」 -

화자와 대상의 관계	어린 매미를 위해 느티나무에 붙어 있는 _____을 보고 _____을 향한 _____의 헌신에 대해 생각하는 '나'
------------	---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미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질 수 있다는 화자의 추측에는 어머니 없이는 자식의 삶도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의 이미지와 '결레'가 된 '팔순의 어머니'의 의미 지는 자식을 위한 헌신으로 남루해진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몸에 힘'을 주는 허물을 떼려는 '힘'은 자식을 향한 끈질긴 모성을 의미하고 있다.
- ④ '어린 매미'가 벗어 놓은 '허물'이 어린 매미를 낳은 어머니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매미의 허물과 자신의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 ② 점층적 표현으로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 선지 판단의 공식

MEMO

①

작품

화자는 허물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고 추측함,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본 어머니를 '나의 \_\_\_\_\_', 아들인 자신은 '\_\_\_\_\_'라고 함

**선지** '매미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질 수 있다는 화자의 추측에는 어머니 없이는 자식의 삶도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②

작품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하여 \_\_\_\_\_ 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_\_\_\_\_ 을 씌, 화자가 집에 돌아와서 본 어머니는 \_\_\_\_\_ 의 나이 임에도 '걸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 모습으로 그려짐, 화자는 그러한 어머니를 '허물', 아들인 자신은 '매미'라고 함

**선지**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의 이미지와 '걸레'가 된 '팔순의 어머니'의 이미지는 자식을 위한 헌신으로 남루해진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작품

\_\_\_\_\_ 가 허물을 나무에서 떼려고 하자 \_\_\_\_\_ 이 '갑자기 몸에 힘'을 줌, 화자가 손에 힘을 줄수록 허물은 나무에 더 착 달라붙음

**선지** '몸에 힘'을 주는 허물을 떼려는 '힘'은 자식을 향한 끈질긴 모성을 의미하고 있다.

④

작품

화자는 허물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허물은 허물을 \_\_\_\_\_ 날아간 \_\_\_\_\_ 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고 추측함,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본 어머니를 '나의 허물'이라고 함

**선지** '어린 매미'가 벗어 놓은 '허물'이 어린 매미를 낳은 어머니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작품

허물은 자신이 없으면 어린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여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인간힘을 씌, 화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본 어머니 역시 '\_\_\_\_\_ 을 씌며 아직 느티나무 등치에 \_\_\_\_\_ 있다고 함

**선지** '인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매미의 허물과 자신의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있다.

## 3주차 학습 안내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훈련을 할 거야. <보기>는 지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즉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작가의 의도, 작품에 활용된 기법의 소개 등을 통해 제시된 지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지. <보기> 문제는 대체로 3점인 경우가 많고 오답률도 높은 편이야. <보기>가 포함된 문제를 풀 때는 선지의 진술이 지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도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에 대비해 3주차에서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각 선지의 <보기> 속 근거, 작품 속 근거를 확인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 이러한 훈련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작품-<보기>-선지 내용 간의 연결 관계를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답 선지가 구성되는 방식이 눈에 보일 거야. 3주차 훈련을 통해 <보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지를 판단해 보자.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대합실 밖은 밤새 \_\_\_\_\_ 이  
 쌓이고 있어.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뚱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대합실 안에는 \_\_\_\_\_가 지퍼지고  
 [A] 있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대합실에서 \_\_\_\_\_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피곤해  
 줄고 있거나 \_\_\_\_\_에 걸려 기침을 하고 있어.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툇뚱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나'는 난로에 \_\_\_\_\_을  
 한 줌 던지며 \_\_\_\_\_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어.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합실 안 사람들은 \_\_\_\_\_없이 추위에  
 언 \_\_\_\_\_을 난로에 녹이고 있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B]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나'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_\_\_\_\_  
 \_\_\_\_\_은 때로 묵묵히 \_\_\_\_\_하며 감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룩싸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대합실 안 사람들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일 거야. 이들은 모두 침묵하며 \_\_\_\_\_의 화음에 귀를 적시고 있어.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눈은 \_\_\_\_\_이나 \_\_\_\_\_  
 같은 삶의 모든 고통을 다 덮어 버리네.

[C]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_\_\_\_\_을 흘리고 있네.

- 광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

화자와 대상의 관계	옛 추억에 대한 _____과 대합실에서 _____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는 '나'
------------	--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툇뚱'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비유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
- ②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 ① **〈보기〉** 화자는 \_\_\_\_\_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함,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작지만 \_\_\_\_\_ 어린 하나의 선물임 **+** **작품** '나는 / 한 줌의 \_\_\_\_\_ 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나는 / 한 줌의 \_\_\_\_\_ 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선지** [A]에서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보기〉** 화자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_\_\_\_\_ 어린 시선으로 바라봄,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_\_\_\_\_ 에 주목함, 한 줌의 \_\_\_\_\_ 은 화자가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임 **+** **작품** '내면 깊숙이 \_\_\_\_\_ 들은 가득해도', '모두들 \_\_\_\_\_ 도 하지 않았다.', '\_\_\_\_\_ 해야 한다는 것을 / 모두들 알고 있었다.', '나는 /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선지**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보기〉** 화자는 공감 어린 시선으로 불빛, \_\_\_\_\_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_\_\_\_\_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함,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_\_\_\_\_ 임 **+** **작품** '그래 지금은 모두들 / 눈꽃의 \_\_\_\_\_ 에 귀를 적신다.', '나는 /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선지**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보기〉** 화자는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함,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_\_\_\_\_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임 **+** **작품** '\_\_\_\_\_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선지**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보기〉** 화자는 공감 어린 시선으로 \_\_\_\_\_,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함,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작지만 \_\_\_\_\_ 어린 하나의 선물임 **+** **작품** '나는 /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나는 / 한 줌의 눈물을 \_\_\_\_\_ 속에 던져 주었다.'
- 선지**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4주차 학습 안내

4주차에서는 설명글이 포함된 융합 지문에 대한 독해와 융합형 문제의 선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훈련을 할 거야. 이를 위해 하루에 한 세트의 융합 지문을 신디, 설명글의 주요 내용을 작품에 적용하며 풀어야 하는 융합형 문제를 2문항씩 수록하여 보다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어.

먼저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우며 설명글과 현대시 지문을 읽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하자. 이후 3개의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1번과 2번 문제의 선지들을 다시 분석해 보면 돼. 빈칸을 채우며 설명글과 작품을 연결하여 각 선지의 정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처음 문제를 풀 때 거쳤던 자신의 사고 과정과 비교해 보자.

고난도 융합형 문제의 정오 판단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지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생겨나는 의미에 대한 사실적 판단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4주차의 훈련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화자는 \_\_\_\_\_에 고향이 아닌 타국에 머물고 있는 쓸쓸한 처지야.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_\_\_\_\_나 \_\_\_\_\_  
 같은 유명한 시인들도 고향이 아닌 먼 타관에서 화자처럼 명절을 맞이한 일이 있을 거  
 라고 추측하고 있어. 이 시인들과 일종의 (동질감/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만약  
 오늘 같은 명절에 \_\_\_\_\_에 있었다면 새 옷, 새 신발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_\_\_\_\_  
 \_\_\_\_\_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야.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지. 혼자 외롭게 \_\_\_\_\_생각을 하고 있어.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화자는 두보나 이백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쓸쓸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위안을 얻고) 있어.  
 나는 이제 어니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먼 타국이지만 고향 음식인 \_\_\_\_\_을 한 그릇 사먹고 명절의 따뜻함을 느껴보려 해.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리  
 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니 한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霄)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누그러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두보나 이백도 이런  
 명절에 조상 대대로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_\_\_\_\_을 얻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후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두보와 이백을 마음이  
 \_\_\_\_\_ 옛 시인들로 칭하고 있네. 그들이 그러했듯 화자도 고향을 추억하는 음식 앞  
 에서 \_\_\_\_\_을 느낄 거야.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뽁뽁 높아서  
 명절을 맞이해서 \_\_\_\_\_의 분위기는 즐겁고 흥겨워.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화자는 쓸쓸한 마음으로 두보와 이백을 떠올리고 있지.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지금 화자가 가진 마음이  
 두보와 이백이 느꼈던 \_\_\_\_\_과 같다고 하면서 그들의 예술적 경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어.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을 생각하며 타국에서 홀로 _____ 을 맞이하는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위로받는 '나'
------------	--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그녀의 집 귀퉁이에 늙은 나무 한 그루가 있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 나무에 \_\_\_\_\_가 며칠째 치고 있으니  
 계절적 배경은 \_\_\_\_\_이겠네.

그녀는 없다, 나는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그녀가 없는 그녀의  
 집에 화자가 홀로 들어갔어.

물은 얼어 끊어지고, 솟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물도 얼어 끊어지고  
 \_\_\_\_\_도 켜하다는 걸 보니 집이 빈 지 꽤 오래되었나 봐.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_\_\_\_\_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 그녀는 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간 거구나.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는  
 이 세상에서 저문, 즉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잇도록 하는 것 화자는 죽기 전까지 춥게 살다 간 그녀가 \_\_\_\_\_  
 을 잊고 평온하게 잠들기를 소망하며 아궁이에서 \_\_\_\_\_를 끌어내고 있어.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살아있을 적의 그녀는 방으로 들어설 때 맨 처음 손으로 \_\_\_\_\_을  
 쓸어보며 방이 얼마나 차가운지 확인했던 거야.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화자는 그녀의 집 아궁이에서



재를 끌어내는 행위를 통해 평생 출고 힘겹게 살았던 그녀가 따뜻한 안식을 취하고  
영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가 죽은 뒤 그녀의 집 _____에서 재를 끌어내며 그녀가 평온히 잠들기를 소망하는 '나'
------------	---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시의 장소는 물리적 공간일 수도, 상상의 공간일 수도 있어.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주관적 정서를 \_\_\_\_\_이라고 하는구나.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화자가 특정 장소에 정서적 유대를 가지면 \_\_\_\_\_이나 \_\_\_\_\_ 등에 의한 장소애를 느끼는구나.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면 \_\_\_\_\_으로 인해 부정적 장소감을 느끼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 ① 과거에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_\_\_\_\_함, ②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_\_\_\_\_을 느끼지 못함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장소의 \_\_\_\_\_이나 장소에 놓인 \_\_\_\_\_들은 화자의 정서를 강화, 확장, 약화시키거나 \_\_\_\_\_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네.

**[A]**

**1.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2.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를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3.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가)와 (나)는 모두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활용하고 있다. ○ ×
- ②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 ×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 |   |  |   |           |  |
|---|--|---|-----------|--|
| <p>①</p> <p>설명글</p>   | <p>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되는데, 화자가 특정 장소의 _____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_____를 형성함</p> | + | <p>작품</p> | <p>(가): '오늘 ㉠ _____에 있다면 /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_____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p>   |
| <p>선지 →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span style="float:right">○ ×</span></p>         |  |   |           |  |
| <p>②</p> <p>설명글</p>   | <p>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_____'라고 함</p>     | + | <p>작품</p> | <p>(가): '먼 타관에 난 그 _____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 이날은 그 어니 한고향 사람의 ㉡ _____을 찾아가서 /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p> |
| <p>선지 →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span style="float:right">○ ×</span></p>         |  |   |           |  |
| <p>③</p> <p>설명글</p>   | <p>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되는데, _____</p>  | + | <p>작품</p> | <p>(가): '아, 이 정월 대보름 _____인데 / ㉢ _____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 소리 뽀뽀 높아서 / 내 _____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p>                   |
| <p>선지 →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span style="float:right">○ ×</span></p> |  |   |           |  |
| <p>④</p> <p>설명글</p>   | <p>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면 _____을 느낌</p>   | + | <p>작품</p> | <p>(나): _____</p>  |
| <p>선지 →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span style="float:right">○ ×</span></p>            |  |   |           |  |
| <p>⑤</p> <p>설명글</p>   | <p>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_____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_____과 관련하여 그 의미는 주관적으로 해석됨</p>                        | + | <p>작품</p> | <p>(나): '저 먼 나라에는 _____ 않은 ㉤ _____이 있는지 모른다'</p>   |
| <p>선지 →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span style="float:right">○ ×</span></p>            |  |   |           |  |



고3 2014학년도 수능A - 이형기,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화자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떠날  
 줄 아는 이를 아름답다고 하네.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화자가 '나'로 나타났네! 시의 제목인 낙화를 고려하면  
 '나'는 자신의 사랑을 꽃으로 비유하여 사랑이 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사랑이 지고 있다는 것은 결별을 말한 거였네! 결별이 축복을  
 이룩한다고 했으니, 화자는 결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무성한 녹음이 있는 여름을 지나 열매를 맺는 가을  
 을 맞이하듯 '나'의 청춘도 꽃답게 죽는다고 하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룻하룻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샹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의 슬픔을 통해 '나'는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 이형기, 「낙화」 -

화자와 대상의 관계	낙화를 보고 사랑과 이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성숙하는 '나'
------------	--------------------------------------

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꽃이 진 뒤 여름이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는 과정은, 이별을 경험한 뒤 내면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과 대응된다. 마지막 연에서 '나의 사랑, 나의 결별'이 '샹터에 물 고이듯 성숙'한다고 했으므로, ㉠(머지않아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성숙)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감을 열매를 맺는 가을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지 화자의 내적인 방향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 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에서 걱정을 인내하였다고 했으므로 이별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화자가 지나간 사랑에 대해 후회하고 미련을 가지는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무성한 녹음)을 지나 '열매(성숙)'를 맺는 '가을을 향하여 //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이별한 이후의 성숙에 대해 말하는 것일 뿐, 이별의 고통으로 인해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샹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은 이별을 통해 성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 영탄: 생각이나 느낌을 억누르지 않고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감탄사와 감탄 어미의 사용을 통해 나타내기도 하고, 명령이나 권유, 혹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기도 함.  
 근거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독백체: 화자 혼자 중얼거리는 식의 말투(어조).  
 근거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등

② ○

- 하강 이미지: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나 그러한 느낌을 불러 일으키는 것. 추락하거나 침체되거나 쇠퇴하는 것도 하강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음.  
 근거 '분분한 낙화', '하룻하룻 꽃잎이 지는' 등

☞ 고3 2018학년도 7월 학평 - 백석, 「두보나 이백같이」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 시에서의 장소감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화자는 명절에 고향이 아닌 타국에 머물고 있는 쓸쓸한 처지야.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두보나 이백 같은  
유명한 시인들도 고향이 아닌 먼 타관에서 화자처럼 명절을 맞이한 일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이 시인들과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만약  
오늘 같은 명절에 고향에 있었다면 새 옷, 새 신발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가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야.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지. 혼자 외롭게 쓸쓸한 생각을 하고 있어.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화자는 두보나 이백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쓸쓸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있어.

나는 이제 어니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먼 타국이지만 고향 음식인 떡국을 한 그릇 사먹고 명절의 따뜻함을 느껴보려 해.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리  
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니 한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霄)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누그러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두보나 이백도 이런  
명절에 조상 대대로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위안을 얻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후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두보와 이백을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로 칭하고 있네. 그들이 그러했듯 화자도 고향을 추억하는 음식 앞에서 슬픔을  
느낄 거야.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뽐뽐 높아서  
명절을 맞이해서 거리의 분위기는 즐겁고 흥겨워.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화자는 쓸쓸한 마음으로 두보와 이백을 떠올리고 있지.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지금 화자가 가진 마음이  
두보와 이백이 느꼈던 쓸쓸한 마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들의 예술적 경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어.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

화자와 대상의 관계	두보와 이백을 생각하며 타국에서 홀로 명절을 맞이하는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위로받는 '나'
------------	---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그녀의 집 귀퉁이에 늙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 나무에 눈보라가 며칠째 치고 있으니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겠네.

그녀는 없다, 나는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그녀가 없는  
그녀의 집에 화자가 홀로 들어갔어.

물은 얼어 끊어지고, 솟검댕이 아궁이는 행하다 물도 얼어 끊어지고  
아궁이도 행하다는 걸 보니 집이 빈 지 꽤 오래되었나 봐.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저 먼 나라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 그녀는 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간 거  
구나.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는  
이 세상에서 저문, 즉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잇도록 하는 것 화자는 죽기 전까지 슬개 살다 간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잇고  
평온하게 잠들기를 소망하며 아궁이에서 재를 끌어내고 있어.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살아있을 적의 그녀는 방으로 들어설 때 맨 처음 손으로 방바닥을 쓸어  
보며 방이 얼마나 차가운지 확인했던 거야.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화자는 그녀의 집 아궁이에서 재를 끌어내는 행위를 통해 평생 춥고 힘겹게 살았던 그녀가 따뜻한 안식을 취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

- 문태준, 「가재미 3-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b>화자와 대상의 관계</b>	그녀가 죽은 뒤 그녀의 집 아궁이에서 재를 끌어내며 그녀가 평온히 잠들기를 소망하는 '나'
-------------------	--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시의 장소는 물리적 공간일 수도, 상상의 공간일 수도 있어.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주관적 정서를 장소감이라고 하는구나.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화자가 특정 장소에 정서적 유대를 가지면 소속감이나 일체감 등에 의한 장소애를 느끼는구나.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면 소외감으로 인해 부정적 장소감을 느끼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 ① 과거에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상실함, ②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공감을 느끼지 못함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장소에 놓인 대상들은 화자의 정서를 강화, 확장, 약화시키거나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네.

1.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주막이나 반관)은 화자 자신처럼 과거 언젠가 '먼 타관'에서 쓸쓸히 명절을 보냈을 두보나 이백이 찾아갔을 것이라고 화자가 상상해 본 장소이다. 화자가 ㉢에서 두보나 이백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고향의 내 집)은 화자에게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명절을 보내던 기억이 있는 곳이므로,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소속되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거리)은 대보름 명절의 축제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으로, 화자는 그곳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녀의 빈집)은 '물은 얼어 끊어지고, 숲검댕이 아궁이는 켜'한 곳으로, 화자로 하여금 '그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실감하게 하는 곳이다. 화자는 ㉢에서 '그녀는 없다'고 하며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방)은 '저 먼 나라'에 있을지 모르는 '출지 않은' 공간으로,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떠올린 상상의 장소이다. 화자는 춥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녀에 대한 연민을 투영하여 ㉢과 같은 장소를 떠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풀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낯선 타관에서 명절을 맞이한 화자가 일시적으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장소이므로,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장소가 현재 화자가 머물고 있는 타관에서 느끼는 소외감, 외로움을 잠시나마 위로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풀이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화자는 '남의 나라'에서 '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며 고향을 떠올리고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하고 있다. 타관을 나타내는 '남의 나라'와 화자의 향수를 자극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다.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화자는 과거 고향에서 '일가친척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실컷 먹고 명절을 즐겁게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현재 '마른 물고기 한토막'을 먹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외로움,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떡국'은 타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가 옛 시인들처럼 '스스로 마음을 느끼어 위안'하게 하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득하니 슬'프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다.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화자는 '떡국'과 유사한 음식인 '원소'를 떠올리며 과거 자신과 비슷하게 타관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들과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 3.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 **반복**: 같은 것을 되풀이함. 음운이나 음절의 반복, 시어나 시구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 **변주**: 일정한 주제나 형식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것.

**근거** (가):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 (나): '저 먼 나라에는 춤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② ✕

- **음성 상징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와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인 '의태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근거** (가): '탕탕', '뽕뽕'



1번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세요.

###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 ①
- 설명글**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되는데,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함
- 작품** (가):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다면 /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 선지**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 ②
- 설명글**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고 함
- 작품** (가):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 이날은 그 어니 한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 선지**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 ③
- 설명글**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되는데,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함**
- 작품** (가):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 ㉢**거리**에는 오독독기 탕탕 터지고 호궁 소리 **뽕뽕** 높아서 /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 선지**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 ④
- 설명글**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면 **상실감**을 느낌
- 작품** (나): '**그녀는 없다**, 나는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 선지**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 ⑤
- 설명글**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그 의미는 주관적으로 해석됨
- 작품** (나): '저 먼 나라에는 **춤**이 많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 선지**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